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0

신성한 같은 형상을 이룸을 위하여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림 (1)

성경: 고후 3:18, 롬 8:28-29, 12:2, 빌 3:10, 히 10:19-20, 벧전 2:21

I.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짐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대체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감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변화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낡은 요소를 배출하고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들기 위한 신성하고 영적인 신진대사이다—고후 3:18: 롬 12:2, 갈 6:15, 요 3:30, 골 2:19.

A.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 꽃피신" 그리스도이시다—고후 3:18, 4:1, 16-18, 요 12:23-24, 17:1, 눅 24:26.

1.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 있으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더욱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엡 6:17-18, 시 71:14, 잠 4:18-23, 삿 5:31, 마 13:43.
2.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고 있다.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점유하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며 지배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정과 의지 안에서도 새롭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을 조절하고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롬 12:2, 8:6, 엡 4:23, 비교 롬 7:25.

B.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 결과는 믿는 이들이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귀한 재료들, 곧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이다—고전 3:9-12, 시 68:11-13, 19-20.

1. 금과 은과 보석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과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상징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속성에 있어서 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하심에 있어서 은이시며, 그 영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보석이시다—고전 3:12 상.
2. 변화는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어서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오직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몇몇 온전케 하는 이들, 곧 변화시키시는 삼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들인 " 변화시키는 이들" 을 통해 발생한다—아 1:10-11, 엡 4:11-12.
3. 열과 압력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말하는 실행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한다—빌 2:5, 4:6, 요 3:15, 벧후 1:4.

II.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의 종착지이다—롬 8:28-29.

A. 변화는 내적이고 또한 모습에 있어서의 신진대사적인 바뀜과 관련되는 반면에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외적이며 또한 모습을 지음으로써 형상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B.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양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자아 모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자아 모양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롬 5:10.
C. 우리는 현재 성숙의 과정, 즉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에 대한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실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다—히 6:1 상, 2:1, 3, 10-11.
D.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생명의 모양을 갖게 하는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모습과 틀과 형상을 갖도록 모양을 갖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E.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아의 노력은 통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이 유력하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모양을 갖게 하는 신성한 생명이다—영한동번 찬송 395 장.

I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자아성찰하는 자아로부터 구출받는다—빌 3:10, 아 2:8-14.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과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다—갈 3:27, 고전 1:30.
B.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6 장 6 절에서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 사실상 영적인 이상 안에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C. 우리의 옛 사람, 즉 우리의 타락하고 타고난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지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표현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내주하시는 그 영과 협력해야 한다—갈 5:16, 24.
D.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넣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한 결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주님, 저는 당신의 편에 서는 것을 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더이상 습관적으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저의 타고난 생명의 모든 습관들을 제쳐두게 해 주십시오." —롬 8:13, 딤전 4:7, 빌 1:21 상.
E.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인간 생명을 계속해서 죽음에 넣으신 것을 가리킨다—요 6:57, 사 7:14-15.
F. 우리가 그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생명을 향하여 죽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자아성찰하는 자아로부터 구출받는다—아 2:9, 14.
G.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전 15:31.
H.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우리의 옛 사람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이다—마 16:24.
I.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며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와 하나이며 십자가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갈 6:17, 비교 계 21:21.
J.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참된 체험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탁월한 기쁨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참되게 보는 것이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참된 체험이다—고후 13:14, 요일 1:3, 시 43:4 상.

K. 믿는 이들이 그들의 혼 생명을 잃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의 혼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그들의 혼이 다가오는 시대에 시대적인 징벌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마 10:37-39, 눅 14:26, 벧전 1:9, 마 25:30, 24:51, 히 10:39.

IV.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신성한 같은 형상을 이룸을 위한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히 10:19-20, 벧전 2:21.

A. 오늘날 지성소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에 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이시며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만짐으로써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주입받고 하나님과 하나된다—히 9:12, 24, 딤후 4:22, 고후 6:17.

B.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은혜의 보좌, 즉 누림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다스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이신 그분과 은혜이신 그분을 받음으로써 때에 맞는 도움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채운다—히 4:16.

C.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알리신 후에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요 21:19.

1. 우리가 따르는 분인 ' 나' 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인도에 의해 주님을 따라야 한다—요 21:18, 롬 8:14.
2.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주의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발생할 일은 그와는 관계가 없으며 그에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요 21:20-22.

D. 주님을 따르는 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히 6:19-20, 13:13, 출 33:7-11.

1.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곳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계신 곳이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쫓겨나신 곳인 종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벧전 2:21.
2.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에 의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봄으로써 땅과 땅에 속한 사랑을 버리고 진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3.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4.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감추인 만나와 싹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으로 누릴 수 있는 곳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히 9:3-4.

© 2014 Living Stream Ministry